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겨레*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혀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에 관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외상경험의 정도와 적응유연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경험의 정도와 정신건강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적응유연성과 정신건강 관계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북한이탈청소년, 정신건강, 정신건강영향요인, 문화적응스트레스

1. 서론

현재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2월까지 총 18,339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가족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숫자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2월 기준으로 10~19세 이하의 북한이탈 청소년 수는 2,156명으로 전체 남한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0). 현재까지는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의 비율이 낮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청소년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사회복지학, woorinara05@hotmail.com

북한이탈청소년의 증가 속도와 국내 입국 규모가 점점 증가되어지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현황과 실태(이항규, 2006; 윤여상, 2003; 엄경남, 2001), 학교부적응(길은배·문성호, 2003; 박선경, 1998; 홍덕기, 2001, 김연희; 2009), 교육 및 사회·문화적 차이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나타났다(장문강, 2006).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기아, 폭력, 성폭력, 체포 및 죽음의 두려움, 가족의 상실 등의 사건, 사고를 경험한 후 나타나는 다양한 스트레스, 공포감, 두려움 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양계민·황순택, 2008;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강효립, 2007).

정신건강은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에서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 뿐 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즉 이것은 모든 종류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포함하며 어떠한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정체성 성립이 이루어지는 인생주기에 속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은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를 적응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이러한 우울과 불안의 성향이 있는 경우 약물사용이나 자살, 가출 등의 문제를 발생하므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남민·조수철, 1994).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의 차이로 인한 심리·사회적 충격(박미석, 이종남, 1999), 남한의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에 적응하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이기영, 2002).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과 입국과정에서 외상경험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생활 문제와 함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이기영 외, 2009).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많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며,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 사회적응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인 의지와 대응력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엄경남, 2001), 김현아(2006)는 개인특성 중 적응유연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 척도를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이고, 종속변수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사이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외상경험의 정도, 적응유연성,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이탈청소년에 관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

(1)정신건강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의 보고에서는 정신건강이란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정신건강이란 행복하고 만족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등의 안녕 상태 또는 정신적으로 병적인 증세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으며, 자주적이고 건설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영호, 2003).

정신건강 관련한 선행연구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양미진 외(2006)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내적 요인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과 정신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심리 내적 특성이 낙관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리(2007)는 역경과 유연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친사회적 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역경이 많을수록 불안과 우울, 좌절감을 더 많이 겪으며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적응과 친사회적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유연성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좌절감은 낮아지고, 학교생활 적응도 더 잘 하고,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을 선행연구에서 많이 적용한 우울과 불안으로 측정하였다. 우울이란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말하며, 이러한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우울증과 같은 증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불안은 자기에게 닥칠 위협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미래의 가능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어 자기 안전이 깨어질 것이라는 두려운 감정을 뜻한다. 불안해지면 심장의 고동이 세고 가슴이 죄는 듯하며, 머리가 무겁고, 식은땀이 나며,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가는 과정으로 변화가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격동의 시기이며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흔한 증세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이 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이 많은데 비해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므로 그에 따르는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한유진, 1993).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10대가 20대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강효립, 2007).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새로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고, 학업, 교육,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을 가지며, 또한 문화적 충격과 변화된 환경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면서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자신과 환경에 대해 생물심리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신적 안녕상태로 보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한다.

(2)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근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자아정체감이 성립되고 역할혼란과 비행이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에 속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미진 외(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내적 요인에 따른 정신건강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과 정신증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심리 내적 특성이 낙관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리(2007)는 역경과 유연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역경이 많을수록 불안과 우울, 좌절감을 더 많이 겪으며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적응과 친사회적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유연성이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 좌절감은 낮아지고, 학교생활 적응도 더 잘 하고, 친사회적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목혜연(2007)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남한 거주 기간, 지역, 사회적 역할, 가족구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심리적 적응 수준을 알아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자살 충동이 높게 나타났고 형제와 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가 분노가 높게 나타났다. 강효림(2007)은 성별, 연령, 남한거주기간, 경제수준에 따른 우울과 불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10대 중후반인 집단이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한거주기간을 5년 미만과 5년 이상의 두 집단을 나누어 살펴보면 5년 미만인 집단이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은 빈곤인 집단이 가장 낮은 우울과 불안이 나타났다.

이명아 외(2006)는 북한이탈청소년이 탈북과 입국 과정에서 겪은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들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접근하여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지원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 가족의 유무, 남한 거주 기간, 제3국 거주기간, 외상경험의 정도, 적응유연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1) 문화적응스트레스

먼저 문화적응이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나타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에서 집단의 문화적 변화를 말하고, 심리·문화적 적응은 개인의 행동이나 가치, 태도, 정체감 등의 차원에서 개인의 심리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문화적응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을 경험하며,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와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막다른 골목에 달한 느낌이나 소외감,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을 동반하며,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건강과 같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한다(이소래, 1997).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떠나 새로운 남한의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익숙한 삶의 공간을 두고 떠난 것에 대한 슬픔과 우울을 나타내고, 무기력함과 혼란함 등을 겪는다(정진경·양계민, 200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의 경험을 하며,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와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가진다(이소래, 1997). 북한이탈청소년은 탈북 과정에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탈북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이기영, 2002), 탈북과 입국하는 과정에 외상의 경험과 도피 생활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가지고 있다(이소래, 1997). 북한이탈청소년은 일반 청소년과 다르게 탈북과 입국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사건을 경험하고, 정상적인 발달단계와 과업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문제와 새로운 문화를 적응해야하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함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을 개인에게 펼쳐진 새로운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으로 보고, 북한이탈청소년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문화적응스트레스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오늘날 한국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국 사회에 와서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속성으로서 이주자의 인구학적, 사회적,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 성, 연령, 교육수준, 인지성향, 이주 전 다문화경험, 언어 능력, 접촉경험 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ry et al., 1987; 정기선·한지은, 2009 재인용).

이소래(199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남한의 거주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한국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탈북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이나 쫓김의 경험유무에 따라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지지자가 있는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다고 나타났다. 김종국(2007)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제3국 체류기간, 학교유형, 가족유형별, 후원자의 유무에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성별, 건강상태, 남한거주기간, 경제생활수준에 따라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김선화(2005)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다고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 동족집단의 지지,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공공기관의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다고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국희(2009)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우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정폭력경험이 적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되는 요인을 찾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북한이탈청소년의 긍정적인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북한이탈청소년 자신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이다(목혜연, 2007). 또한 김현아(2006)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많은 어려움과 생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남한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지만, 적응유연성과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 남한에 함께 사는 가족 유무, 제3국 거주기간, 남한 거주기간, 외상경험의 정도, 적응유연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송희(2009)의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는 신체화 증상과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문화수용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이 심리적 부적응 증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오남(2007)의 농촌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인선(2004)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규환 외(2007)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우울에 관한 연구로서, 직장에 잘 적응할수록 우울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미령(2005)의 연구에서도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 원을 무직상태와 가족의 역할 상실로 보고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응스트레스가 탈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목혜연(2007)의 연구에서 우울, 불안, 자살충동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강효립(2007)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이에서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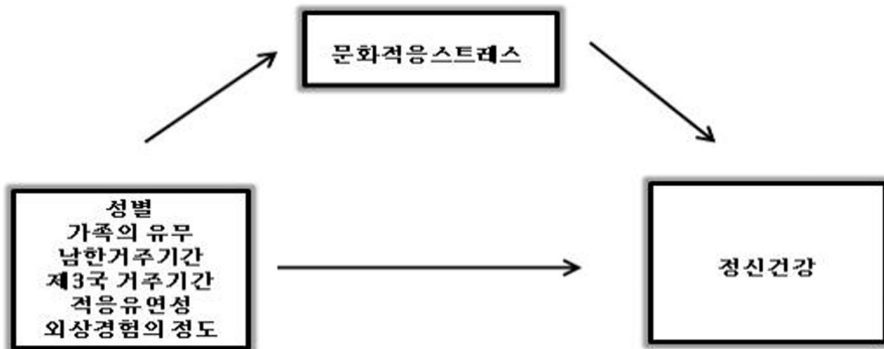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설계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09년도 10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기간 동안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청소년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그 숫자는 남자 10명, 여자 28명으로 총 38명이고,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은 신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접근이 제한적이고 정확한 명단 확보가 어려우므로 연구자가 의도적 표집방법으로 서울의 2개 대안학교, 한겨레 학교 및 지역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남자 66명, 여자 68명, 총 134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지역거주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은 남녀의 숫자가 유사하지만 하나원 거주 청소년은 여자가 74.4%, 남자가 25.6%로 남녀 성비가 약 3:1로 최근 2~3년 간 입국하고 있는 북

한이탈주민 전체의 성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하나원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 총 172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를 추출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가족의 유무, 남한 거주 기간, 제3국 거주기간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2)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은 김현아(2006)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김윤나(2008)의 연구에서는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이 대상이므로 김연희 외(2009)의 연구에서 개발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평가도구의 적응유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적응유연성 척도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에 기여하는 내적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강인성(문항 4, 6, 11, 12), 친밀감(문항 7, 8, 9, 10), 목표의식(문항 1, 2, 3, 5)의 총12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원점수가 30점 이상이면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 30점 미만이면 낮은 집단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8$ 로 나타났다.

(3) 외상경험의 정도

외상경험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Foa, Cashman, Jaycox와 Perry(1997)의 '외상 후 스

트레스증상진단척도(Post-traumatic Diagnostic Scale: PDS)를 번안하여 사용한 안현의(2005)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이를 북한이탈청소년의 상황과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재구성한 김연희 외(2009)의 연구에서 개발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평가도구의 외상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외상 사건 유형에 관련해서는 한자어 표현은 될 수 있으면 북한이탈청소년이 이해할 만한 한글말로 번안(예, 홍기위협 → ‘총이나 칼에 맞기’)하였고, 북한이탈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는 문항은 삭제하였으며(‘전쟁에 나갔거나 전쟁지에서 살았던 경험’),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시켰다(예, 강제로 감금된 경험: 예, 교화소, 단련대 수감, 인질경험, 북송경험 등). 또한 외상경험 3문항 ‘가족과 관련된 충격적 사건 소식을 들음(예, 가족의 죽음, 체포, 구금, 북송)’, ‘가족과 관련된 충격적 사건을 목격함(예, 가족의 죽음, 체포, 구금, 북송, 기타 충격적인 사건들)’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외상사건 유형과 관련된 13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외상 경험에 따라 ‘예(1점)’ 혹은 ‘아니오(0점)’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조사도구의 Cronbach's $\alpha=.732$ 로 나타났다.

(4)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1994)가 있고, 이소래(1997)은 이를 번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연희 외(2009)의 연구에서 개발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평가도구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들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이질감(문항 4, 8, 9, 10), 문화충격(문항 6, 7, 13), 차별(문항 1, 2, 3), 주변화(문항 11, 12, 16), 향수(문항 5, 14, 15)의 5가지 하위요인 총 16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1점)’, ‘보통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구성되었다. 총점수가 33점 미만일 경우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점수가 33~43점 미만의 범위일 경우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문제가 잠

제적 위험군에 속하고, 총점수가 43점 이상이 되면 문화적응스트레스 문제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Cronbach's $\alpha=.862$ 로 나타났다.

(5)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Hopkins Symptom Checklist-25(Mollica et al., 1987)을 사용하였다. HSCL-25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나 난민들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이 검사는 외국에서 다른 난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SCL-25의 우울 15문항과 불안 10문항을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현실적 상황에 맞는 형태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척도는 우울(4, 6, 8, 9, 11, 13, 15, 16, 18, 20, 21, 22, 23, 24, 25)에 관한 15문항, 불안(1, 2, 3, 5, 7, 10, 12, 14, 17, 19)에 관한 10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HSCL-25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평균점수가 1.75 이상이면 우울과 불안인 것으로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Cronbach's $\alpha=.922$ 로 나타났다.

이상의 척도에 대한 요약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구분	변수	내용	문항수	신뢰도
독립 변인	성별	남, 여	1	-
	가족의 유무	남한에 함께 사는 가족	1	-
	남한거주기간	남한입국 년 월 일~2009/12/06 기준	1	-
	제3국 거주기간	탈북 년 월 일~남한입국 년 월 일	1	-
	적응 유연성	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12	.848
	외상경험의 정도	외상사건 경험 횟수	13	.732
매개 변인	문화적응스트레스	0-전혀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다, 2-보통이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16	.862
종속 변인	정신건강	0-전혀 그렇지 않다, 1-때때로 그렇다, 2-자주 그렇다, 3-항상 그렇다	25	.922
합계			70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SPSS for Window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의거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8에서와 같이 성별 분포의 경우, 남자는 44.2%(76명), 여자는 55.8%(96명)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유무의 분포 경우, 가족이 있는 경우 90.1%(155명), 가족이 없는 경우 9.9%(17명)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제3국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3년 미만인 경우 76.8%(119명), 3년 이상인 경우 23.2%(36명)로 나타났으며, 남한정착기간을 살펴보면 3년 미만인 경우 64.0%(110명), 36.0%(62명)로 남한에 정착한지 3년 미만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분석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설정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 매개변수로 설정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독립변수로 설정한 외상경험의 정도, 적응유연성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3과 같다.

표 2. 조사 대상들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내용	N	%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	76	44.2
		여	96	55.8
		계	172	100
	가족의 유무	유	155	90.1
		무	17	9.9
		계	172	100
	제3국 거주기간	3년 미만	119	76.8
		3년 이상	36	23.2
		계	155	100
	남한정착기간	3년 미만	110	64.0
		3년 이상	62	36.0
		계	172	100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에 관한 평균은 $M=2.27$ ($SD=2.30$)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유연성은 $M=34.62$ ($SD=6.37$)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응유연성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해서 평균이 $M=23.73$ ($SD=9.86$)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는 보통인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 $M=14.02$ ($SD=10.92$)으로 나타나 불안과 우울 증상이 조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들의 특성

(N=172)

변수		총점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독립변수	외상경험의 정도	2.27	2.30	0	9
	적응유연성	34.62	6.37	18	48
매개변수	문화적응스트레스	23.73	9.86	0	53
종속변수	정신건강	14.02	10.92	0	57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조사대상자인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가족의 유무, 남한거주기간, 제3국 거주기간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10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 $M=12.79$ 이고 ($SD=10.80$), 여자의 평균은 $M=15.00$ ($SD=10.97$)으로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t=-1.322$, $p=.188$).

가족의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은 가족이 있는 경우의 평균은 $M=13.34$ ($SD=10.12$)으로 나타났고, 가족이 없는 경우의 평균은 $M=20.29$ ($SD=15.56$)으로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534$, $p=.012$). 즉, 가족이 없는 경우가 정신건강(우울, 불안)수준이 높다.

남한거주기간에 따른 정신건강은 남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의 평균은 $M=15.42$ ($SD=11.38$)이고, 3년 이상인 경우의 평균은 $M=11.55$ ($SD=9.65$)으로 나타났으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259$, $p=.025$). 즉, 남한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인 경우가 3년 이상인 경우보다 정신건강(우울, 불안)수준이 높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구분	내용	N	M	SD	df	t
성별	남	76	12.79	10.80	170	-1.322
	여	96	15.00	10.97		
가족의 유무	유	155	13.34	10.12	170	-2.534*
	무	17	20.29	15.56		
남한 거주기간	3년 미만	110	15.42	11.38	170	2.259*
	3년 이상	62	11.55	9.65		
제3국 거주기간	3년 미만	119	13.93	10.87	153	.047
	3년 이상	36	13.83	11.77		

* $p<.05$, ** $p<.01$, *** $p<.001$

4)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인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하고, 외상경험의 정도, 적응유연성을 투입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가족의 유무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 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를 통해 확인 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본 결과, 공차 한계값은 .883~.971로 높으며, 분산팽창요인(VIF)은 1.30~1.132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의 값이 2.119으로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4.6%(adjusted R²=.146)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또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435, p=.000).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의 유무($\beta=-.228$, p=.003), 남한거주기간($\beta=-.163$, p=.036), 외상경험의 정도($\beta=.201$, p=.012), 적응유

표 5.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와 적응유연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N=172)

변수명	B	SE B	β	t	tolerance limit	VIF
(상수)	37.448	5.690		6.581***		
성별(a)	-.847	1.736	-.038	-.488	.884	1.131
가족의 유무(b)	-8.774	2.890	-.228	-3.036**	.970	1.031
남한 거주기간	-.071	.033	-.163	-2.119*	.923	1.083
제3국 거주기간	.029	.027	.081	1.084	.974	1.027
외상경험의 정도	.966	.379	.201	2.552*	.883	1.132
적응유연성	-.460	.134	-.261	-3.424**	.945	1.058
R ²	adjusted R ²		Durbin-Watson		F	
.179	.146		2.119		5.435	

*p<.05, **p<.01, ***p<.001

a성별: 1=남, 0=여, b가족의 유무: 1=유, 0=무

통제변수: 성별, 가족의 유무, 남한거주기간, 제3국 거주기간

연성($\beta = -.261, p = .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성별, 제3국 거주기간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p > .05$).

즉,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beta = .201, p = .012$)와 적응유연성($\beta = -.261, p = .001$)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 계수(β)를 살펴보면 적응유연성이 $\beta = -.261$ 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과 부적(-)관계로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은 낮아진다고 알 수 있다. 외상경험의 정도는 $\beta = .201$ 으로 정신건강과 정적(+)관계로 외상경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높아진다고 알 수 있다.

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매개효과 검증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통제 변수로 하고 주요변수인 외상경험의 정도와 적응유연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한 Baron & Kenny(1986)의 방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Baron & Kenny(1986)는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회귀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면 매개모델이 성립된다고 하였다(홍영수 외, 2005; 재인용). 즉,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유의하였지만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유의적이지 않으면 매개변수는 완전매개효과(full mediation)를 나타내는 것이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적이기는 하지만 3단계에서 2단계에서의 영향력(β)보다는 작은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on)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엄태완,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1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효과 간의 회귀계수를 검증하였고, 2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계수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 간의 회귀계수를 검증한 후 2단계와 3단계의 회귀계수와 유의확률을 비교하여 부분매개효과와 완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 및 적응유연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N=172)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정신건강 β	문화적응스트레스 β	정신건강 β
성별(a)	-.038	-.093	-.007
가족의 유무(b)	-.228**	-.137	-.181*
남한 거주기간	-.163*	-.162*	-.106
제3국 거주기간	.081	-.208**	.153*
외상경험의 정도	.201*	.164*	.145
적응유연성	-.261**	-.265**	-.170*
문화적응스트레스	-	-	.343***
F	5.435***	6.174***	7.985***
R ² (adjR ²)	.179(.146)	.198(.166)	.273(.239)

*p<.05, **p<.01, ***p<.001

a성별: 1=남, 0=여, b가족의 유무: 1=유, 0=무

통제변수: 성별, 가족의 유무, 남한거주기간, 제3국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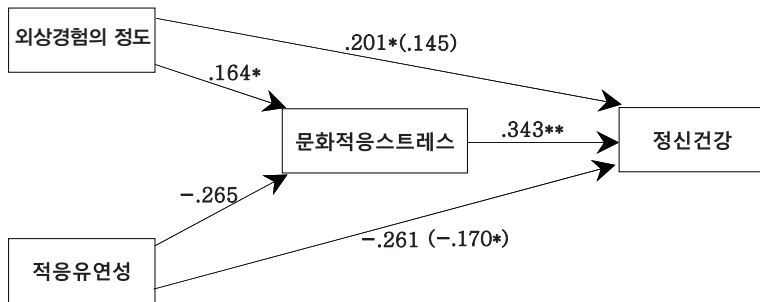


그림 2. 매개효과 분석도

주: () 안의 값; 문화적응스트레스 통제시 β 값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 및 적응유연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다중회귀를 실시한 결과,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7%(adjusted R²=.165)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또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6.137, p=.000). 2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8%(adjusted R²=.145)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또한 p<.001 수준에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F=5.422, p=.000$). 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7.2%(adjusted $R^2=.238$)로 나타났으며, 회귀식 또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7.949, p=.000$).

외상경험의 정도 및 적응유연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변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상경험의 정도는 2단계에서는 회귀계수($\beta=.201, p=.012$)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3단계에서는 회귀계수($\beta=.145, p=.057$)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외상경험의 정도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적응유연성은 2단계에서는 회귀계수($\beta=-.260, p=.0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도 회귀계수($\beta=-.170, p=.02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단계와 3단계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미하고, 3단계 회귀계수의 값이 2단계 회귀계수 값보다 줄었으므로 적응유연성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가족단위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숫자와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써, 인생 주기에 있어서 정체성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에 탈북과 입국하는 과정에서 신체적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여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 가운데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

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나원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 39명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 161명의 총 17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고찰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을 살펴본 결과, 가족의 유무와 남한거주기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선운(2005)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불일치하고, 서정미(2004)의 연구에서 가족의 동거 유무에 따라서 사회적응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며, 강효립(2007)의 연구에서 남한거주기간에 따라 우울과 불안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와 적응유연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적응유연성이 정신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겪은 폭력, 굶주림, 고문, 공개처형 목격, 성적학대 등의 다양한 외상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기영 외(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이해리(2007)의 연구 결과 역경에 처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적응유연성 요인들은 심리적 안녕과 자긍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 및 적응유연성과 정신건강 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와 적응유연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와 적응유연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상경험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정도와 정신건강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적응유연성과 정신건강 관계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상경험의 정도를 파악하여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남한 입국 초기에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고 임파워먼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1:1 멘토링과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남한 문화와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과 지역적응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응스트레스에는 사회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이 기여하기에 남한 주민들의 인식개선 캠페인과 시민교육도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 더욱 다양한 요인에 관한 양적 연구와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어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적응유연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위해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1년 5월 14일 접수, 2011년 6월 18일 수정, 2011년 6월 20일 채택

참고문헌

- 강효림, 2007, 탈북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길은배·문성호, 2003,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문제와 정책적 함의,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 학 연구, 14(4), 163-186.
- 김미령, 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57(1), 193-217.
- 김선화, 2005,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희, 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191-215.
- 김윤나, 2008,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아, 2006, 새터민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오남, 2007, 농촌지역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김종국,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민 · 조수철, 1994, 소아와 청소년의 행동장애와 우울, 불안증상과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회 33(6), 1274-1283.
- 목혜연,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석 · 이종남, 1999, 탈북가족의 남한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17, 서울: 통일연구원.
- 박선경, 1998,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정미, 2004, 북한이탈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응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양계민 · 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 연구, 49, 333-358.
- 양미진 · 이은경 ·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63-76.
- 엄태완, 2008,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한국정신보건의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8, 36-66.
- 윤여상, 2003, 중국지역 탈북 청소년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1(2), 343-364.
- 이국희, 2009,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환 · 김영민 · 양명재 · 최영순 · 고은애 · 이광자 · 김지영, 2007,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 우울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 41, 14-22.
- 이금순 · 최의철 · 임순희 · 김수암 · 이석 · 안혜영 · 윤여상, 2004,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기영 · 박영희 · 엄태완 · 김현경 · 김현아, 2009, 이주난민의 정신건강과 상담, 서울: 나눔의 집.
- 이명아 · 김일용 · 김지연 · 정경미, 2006, 새터민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660-661.
- 이선윤, 200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5(11), 18-113.
- 이영호, 2003, 정신건강론, 현학사.
- 이우영, 2000,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해리, 2007, 역경과 유연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교생활적응,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5(1), 51-66.
- 이향규, 2006, 새터민 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와 과제, 교육비평2006 가을겨울, 21, 193-207.
- 장문강, 2006,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기선 ·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회, 32(2), 87-114.
- 정진경 ·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 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채송희, 2009,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유진, 1993,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귀인양식과 학업성취,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덕기, 2001,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학교 및 사회생활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영수 외,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125-149.
- Sandhu & Asrabadi, 1994, Acculturative Stress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435-448.
- 통일부, 2010, www.unikorea.go.kr.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Mental Health in North Korean Defector Youth: The Mediating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Lee, Kyeo Re*

Abstract_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factors of psychological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 youth and investigate the mediated effect of the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and through these findings, to produce preliminary data for further research on North Korean defector youth and provide social welfare intervention measures to promote psychological health.

Traumatic experiences and adaptation flexibility were found to be the factors of psychological health for North Korean defector youth; in terms of traumatic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health, the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was proved full mediation, and in terms of adaptation flexibility and psychological health, the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was proved partial mediation.

In conclusion, social welfare intervention measures to promote the psychological health of the North Korean migrant youth were proposed according to these research findings.

Keywords_North Korean migrant youth, psychological health, factors of psychological health,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 Center for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Welfare, woorinara05@hotmail.com